

2010년 미래의 시간, 희망의 신세대



2010년 주님의교회 제직수련회가 1월 31일 오후 3시부터 400여명 제직들이 대예배실에 모여 박원호 담임 목사의 말씀과 박영근 외부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박원호 담임 목사는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며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마음을 거룩한 공간을 만들자 하며 부쩍 많아진 젊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공

은퇴목사 초청 예배에서



2월 2일 (화) 주님의교회에서는 200여 분의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다. 그분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에 비하면 조그마한 보답이

간을 열어주며 그들을 올바르게 주님의 품에 안아주는 것이 제직의 책임이라 했다. 변신을 위한 몸부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영적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것만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에 함께 헌신하기를 제직들에게 당부하였다. 사역부서 소개와 제직들 소개 후에는 봉사소위원회 제직들의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넘쳐 주를 찬양하겠다’는 특송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박영근 강사가 ‘다시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들은 후 지하 식당에서 식사공동체를 나누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2010년 제직수련회를 마쳤다. <신형섭기자>

지만 그분들의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더욱 풍요롭게 느껴졌다. 그분들을 위해 식사를 마련하는 시간내내 교우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사의 보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빛이 나는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인데 주위 사람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하진 않았나 반성하게 된다. 은퇴 목사님들이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한다. <신형섭기자>

사도신경 고백형식 변화

2010년 새해에는 사도신경 고백형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을 이끌어 내고자 인도자의 물음에 공동체의 고백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고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구를 믿음으로 해결하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누구를 믿음으로 이루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감미로운 찬양이 이어졌으며 참석한 안수집사들도 2010년을 새롭게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신형섭기자>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중 하나가 CCM이라고 생각합니다. CCM은 만만치 않은 우리 네 신앙 여정에 함께 하면 더없이 좋을 귀한 길동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CCM음반은 <꿈이있는 자유 3집 아침묵상>입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들어도 그 은혜와 감동이 여전한 국내 CCM계의 명반입니다. 꿈이있는자유는 정성원목사님, 한웅재목사님 두분이 노래하시는 남성듀엣입니다. 두분 목소리는 울림이 깊고 따뜻합니다. 목소리에서부터 영성이 묻어난다고 할까요? 여기에 실린 찬양들은 고요한 새벽 혹은 아침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앉아 그 분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설레고, 가슴벅찬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 중 '소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워낙 유명한 곡이라 이 음반을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도 금방 친숙해지실겁니다. 부디 이 음반들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윤정 기자>

함글함글에서 기사를 모집합니다. 하태원 편집장 HP_019.313.3073

|오늘의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 15 : 15

통 권 제 258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0년 2월 7일

물질이 없는 아이티, 마음이 없는 우리를 돕고 있다



15일만에 극적구조된 아이티소녀 / 가물거리는 쫓돌을 보고 생명을 전하는 목사님 / 잔해에 묻힌 딸의 존재를 알리는 무언의 부정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전. 7:14>

최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중국의 지진에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아이티에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방법에 대해 설교했으며 우리교회 당회에서는 아이티 돕기 특별헌금을 결의했다.

목사님은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오해인데 하나님은 선한 일과 동시에 악한 일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라는 C.S. 루이스의 견해를 인용하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이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높아진 벽과 하나님의 분노를 지적했다. 축복을 받은 예루살렘(발전된 나라)은 갈릴리 지역(아이티)과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벽을 쌓았다. 포도넝쿨이 우거진 농원은 담장을 쌓고 무화과나무가 자라는 틈을 주지 않았다.(눅 13:6-9) 포도나무는 햇빛이 드는 것을 막았고 농부는 새로 심은 무화과나무에 돌레를 파지도 않았고 거름도 주지 않았다. 주인은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라고 설교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사냥하던 그레이 하운드가 더 이상 달리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자 사냥개는 “내가 쫓았던 토끼는 가짜였다”고 말했다며 오늘날 아이티는 갈릴리와 같으며, 무화과나무와 같다면 우리는 가짜를 찾아 지금까지 살아 왔으며 “그들 아이티와 무화과나무가 우리를 돕고 있다. 그들은 물질이 없으며 우리는 마음이 없다”며 우리들의 벽이 높음을 질타했다.

<편집장, 하태원>

함글함글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로 템 나 무



|작아지기|

이제 모임에 가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 속한다. 어느새 뒷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다. 뒷사람 노릇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좋은 배경이란 다른 사람을 잘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배경이다. 배경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게 내가 기억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자. 내가 점점 작아지고 흐릿해지는 것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잠27:2)

주님! 아직도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저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묵묵히 뒤로 물러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를 여는 글 / 신임교역자 소개 2면

하와이 찬양선교 여행 일지 3면

제직수련회 / 신년음악예배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